

우리가 선택한 역사여행지 (1)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은 우리 민족은 일제에 의한 강제점령이라는 아픔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는 민족의 자존심을 훼손당하고, 민족 스스로의 발전이 중단되는 고통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역사적 현실에 굴복하거나 타협하지 않는 민족 독립을 향한 투쟁의 역사가 있으며, 그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서대문형무소는 1908년 10월 21일 일제에 의해 '경성 감옥'이라는 이름으로 개소되어 1945년 해방까지 한국의 국권을 되찾기 위해 싸운 의병, 계몽운동가 및 독립운동가들이 수감되었고, 해방 이후에도 1987년까지 서울구치소로 이용되면서 민주화 운동 관련 인사들이 수감되는 등 한국 근현대사의 굴곡을 안고 있는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지금의 역사관은 당시 부지 중 일부만을 복원해놓은 것으로 과거 고통의 역사를 교훈으로 삼고 독립운동가의 자주 독립 정신과 자유·평화수호 정신을 기리는 교육의 현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목숨을 잃은 순국선열은 총 165분이라고 합니다. 1908년 10월 21일 독립운동가이며 의병대장인 허위 선생이 제호 사형수가 되어 교수형을 당했으며, 서울역에서 일본 총독에게 수류탄 투척을 한 강우규 열사도 이곳에서 순국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관순 열사는 고문 후유증으로 인해 1920년 이곳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민족의 수난과 독립운동의 역사교육 현장인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에 꼭 다녀오고 싶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역사여행지 (2)

군산시시간여행



군산은 일제강점기 일제 수탈에 항거했던 열정과 아픔이 서려있는 도시입니다. 군산시내에는 일제 때 만들어진 건물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군산 내항 표지판을 따라 들어가면 오른쪽에 조선은행 건물이 자리잡고 있으며, 주변에 차를 세우고 안쪽으로 걸어 들어가면 보이는 창고 등의 건물들이 일제 때 만들어진 것들이라 시간여행을 하는 기분이 듭니다. 군산 내항 쪽으로 옛 군산세관, 호남관세박물관, 근대미술관(구 일본 18 은행 군산지점) 등 상업시설이 자리하고 있다면 길 건너 영화동, 신흥동으로는 옛날 일본인들이 모여 살았던 집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일본의 주택가를 걷는 느낌을 받는데 일제 때 이곳에 일본인이 1만 명이나 거주했다고 하며, 일본 학자들조차 당시 일본 주택의 원형을 일본보다 더 잘 간직하고 있다고 평가할 만큼 잘 보존되어있는 곳입니다. 군산의 가볼만 한 곳으로는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신흥동 일본식가옥(히로쓰가옥), 호남관세박물관, 근대미술관(구 일본 18 은행 군산지점), 해망굴, 월명공원, 동국사, 여미랑, 진포해양공원, 경암동철길마을 등이 있습니다.

한편 군산은 2019년 10월 3일부터 5일까지 군산근대역사박물관 및 시간여행마을 일원에서 시간여행축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축제 기간에는 군산의 지역 상인, 예술인 등 시민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창의적인 문화·예술 축제의 장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물론 축제 기간에 방문한다면 더욱 좋겠지만 꼭 그때가 아니어도 군산여행을 통해 근대 역사를 체험하고 수탈의 역사 속에서 항거했던 민족의 혼을 느끼며 다시 마음에 새기는 뜻깊은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역사여행지 (3) 독립기념관



‘역사를 만나 미래를 열다’ 독립기념관의 슬로건입니다. 독립기념관은 외침을 극복하고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지켜온 우리 민족의 국난극복사와 국가발전사에 관한 자료를 수집·보존·전시·조사·연구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민의 투철한 민족정신과 국가관을 정립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87년 8월15일 온 국민의 정성어린 성금으로 건립되었습니다.

민족의 전통문화와 국난 극복사를 모아 전시해 놓은 “겨레의뿌리관”,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며 근대국가로 발전하려던 한국을 무력으로 짓밟은 일본 제국주의 침략상과 한국인의 고난의 역사가 전시되어 있는 “겨레의시련관”, 의병전쟁과 애국계몽운동으로 대표되는 구한말의 국권회복운동을 다룬 “나라지킴이관”, 1910년대 독립운동과 3·1운동을 자세히 설명해주는 겨레의 함성관과 만주를 중심으로 연해주 각지에서 이루어진 독립군과 광복군의 무장 저항 운동을 다양한 전시물과 영상물을 통해 알아볼 수 있는 “나라도찾기관”, 일제강점기 민족문화 수호운동과 민중의 항일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고 있는 “새나라 세우기관” 그리고 일제강점기에 조국 광복을 위해 국내·외에서 전개된 다양한 항일 독립운동을 주제로 한 체험전시관인 “함께하는독립운동관” 등 모두 7개의 전시관을 둘러보고 입체영상관에서 4D 입체애니메이션 영상물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역사여행지 (4)

나라사랑 계룡대

1일 안보견학 프로그램



① 계룡대 소개 / 안보교육



- 계룡대방문 환영 사진촬영 / 계룡대 소개
- 안보영상 시청, 직업군인 소개

② 명예의 전당



- 조국을 위해 싸우다 전사하신 선배전우들의 고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설립된 장소
- 사단별 전시관, 오천년 역사의 광장 견학
- 6·25전쟁, 대침투작전등 전사자 명단(동판)

③ 육군 기록전시관



- 육군기록전시관, 6.25전쟁실
- 역대참모총장 전시실, 행정 박물관전시실

④ 병영식사 체험



당일 병사들과 동일한 식사를 경험할 수 있는 병영식사
※ 견학신청시 사전요청 필요

⑤ 영내투어



- 각 버스별 안내 요원 1명 탑승
- 통일탑, 무기전시장 배경 단체사진 촬영

2011년 4월부터 학생을 포함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계룡대를 견학할 수 있도록 전면 개방하여 나라사랑과 호국보훈의식을 함양하는 국민안보체험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나라사랑 계룡대 견학'을 통해 안보교육을 실시하고, 6.25전쟁과 월남전, 각종 대침투 작전 중에 산화한 전사자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 명예의 전당을 견학함으로써 국가관과 안보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로지도와 연관된 프로그램으로 장교와 부사관과 같은 직업군인이 되는 길을 소개해줌으로써 미래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계룡대를 방문하는 국민 모두에게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참전용사들의 발자취와 숭고한 희생을 귀감으로 삼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예비역 예우향상과 명예선양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룡대 견학에서는 병영식사체험을 할 수 있는데 군복무를 해본 적 없는 우리들에게 특별하고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계룡대는 계룡산 자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계룡산은 아름다운 자연환경으로 유명하며 특히 전체가 공원화된 계룡대 영내에는 100여 마리의 사슴이 서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는 충남지방 유형문화재 66호로 지정된 주초석이 있는데, 조선왕조를 세운 태조 이성계가 신도안 지역의 비범한 지리 형세를 보고 도읍지로 결정하여 약 1년간 공사를 실시했던 흔적이라고 합니다. 또 계룡대 영내에는 계룡대의 상징탑이자 계룡8경의 하나인 통일탑도 자리하고 있는데, 통일탑을 관람하고 군인아저씨와의 기념사진 촬영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중학생부터는 순환식 병영체험으로 페인트볼건 및 BB탄 사격과 나라사랑퀴즈대회도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초등학생이라서 군복 착용 체험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실제 군인들이 착용하는 최신식 전투복을 착용해봄으로써 육군의 발전상을 느끼고 안보관을 확립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